

퇴직연금 시장의 새로운 물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비약적 성장 거둬...

- 올해부터는 월 보수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부담금 10% 지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빠른 외형적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로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가입을 시작한 푸른씨앗은 1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5천여 개 사업장, 7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5천억 원이 적립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다.



작년 푸른씨앗이 거둔 수익률 7%도 주목해 볼 만하다. 그동안 국내 퇴직연금은 1~2%대의 수익률에 머물러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오명을 푸른씨앗이 나서서 깨우고 있는 모양새다.

기존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적으로 운용되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푸른씨앗은 개별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을 기금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동시에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인 2022년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88.5%에 비해 매우 낮아 대·중소기업 간 노후 소득보장 격차가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맞춤형 퇴직연금 제도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했고, 푸른씨앗이라는 브랜드명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면서 간편한 가입 절차, 재정지원과 수수료 면제, 공적 자산운용 서비스 등의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푸른씨앗 확산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원했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지원되며, 올해 가입하는 사업주는 4년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가령 268만 원 미만 근로자 1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평균 적립금이 2억 원이라고 한다면, 사업주에게는 3년간 총 8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수수료도 4년간 총 400만 원이 절감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개별 근로자는 연간 26만 8천 원, 최대 3년간 총 80만 원 이상의 퇴직연금이 근로자 퇴직 계좌에 추가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른씨앗은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661-0075) 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복지연금국 퇴직연금계획부	책임자	부	장	송호암 (052-704-7361)
		담당자	팀	장	류해석 (052-704-7362)